‘무명인’과 ‘그대’들 사이의 인간상

콘노 유키

1. 빈자리의 이들

최근 작업에서 문민은 수건을 재료로 다룬다. 작가가 직접 수집한 수건은 기념일이나 연례행사에서 선물 받은 것 중에 이미 다 썼거나 이제 쓰지 않게 된 것이다. 일상에서 쓰다가 대체되는 수건은 기념일을 기록함과 동시에 쉽게 버려진다. 문민이 기존에 다루어온 철물 조각에서 수건으로 관심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의 궁금증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인체 조각과 <내려오지 않은 것들>(2026)에서 체인블록에 매달려 있는 수건의 모습은 인상이 상반된다. 시각적으로만 봐도 철물과 수건의 질감은 전혀 다르다. 전자가 견고한 데 비해 후자는 유연하다. 또한 전자가 가공되지 않은 재료로부터 출발했다면, 후자는 기성품이다. 기성품의 수건이 익명의 인물이 갖고 있던 흔적을 담는다면, 알루미늄으로 조립한 형태는 익명의 인물을 재현하여 보여준다. 개인전 《무명인의 부산물 part.2》(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2025)에서 문민은 직전에 열린 《무명인의 부산물 part.1》(2025)에 포함되지 않은, 수건을 다룬 작업을 소개하였다.

수건을 다룬 작품을 ‘일상의 기념비’라고 비유하여 말할 수 있다. 아무렇지도 않은 날의 어느 하루가 사소하지만 기념할 만한 날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단조로운 삶을 생기 있게 만든다. 기념비가 어떤 특정 공간에—사건이 일어난, 혹은 그와 연관된 터로 남아 있는—세워진다면, 문민 작품에서 수건은 펄럭이거나 늘어진다. 재료의 변화만 보면, 물성에서 탈피하여 가벼움을 추구하게 된, 데이터화된 오늘날의 삶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문민의 관심사를 매체를 오가면서 분석하고 싶다. 알루미늄판으로 구성한 입체상은 견고하게 서 있기보다는 단위별로 균형을 잡고 있다. 한편, 수건들은 속이 빠진, 그러니까 한때 소유하거나 썼었던 사람의 흔적이 남은 것이다. 문민이 작품명이나 전시 제목에도 가져오는 ‘무명인’과 ‘그대들’은 어떻게 나타날까? 두 가지 표현 방식으로 묘사되는 현대인은 역사적 인물의 동상만큼 견고하지 않지만, 금방 버려지는 수건만큼 일시적이지 않다. 문민이 현대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명인’과 ‘그대들’ 사이에서, 인체상을 둘러싼 부피와 표면의 관계를 고민한다. 조각은 사람의 감정이나 육체를 부피와 표면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이 오래된 질문은 오귀스트 로댕을 비롯한 인체 조각에서도 탐구되어 왔다. 문민의 작품은 오히려 부피에 육감의 표현을 추구하는 대신 빈자리에 ‘무명인’과 ‘그대들’을 불러내어 보여준다.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소개된 <무명인의 부산물_감정선의 표식>(2025)은 깃대에 다양한 수건을 엮은 작품이다. 알루미늄판으로 만든 인물상의 부피보다 평면적인 요소가 두드러진 이 작품은, 알고 보니 그전에 소개된 작품의 연장선에 있다. 개인전 《나를 비롯한 그대들 에피소드 Ⅵ : 양가적 감정》(2023)에서 소개된 작품 중에 <사각형 군상>(2023)이 있다. ‘군상’이라는 말이 가리키듯이, 이 작품은 문민의 입체상이 평면 위에 단면적으로 표현되어 나온 것이다. 자세히 보면, <사각형 군상>의 표현은 수건을 연상케 한다. 입체상이 서 있는 모습보다는 그 자세를 이루는 사각형이 쪼개지거나 해체되어, 수건이 주변에 흩어진 것처럼 보인다. 바로 여기에, 수건을 재료로 사용한 <무명인을 위한 부록>(2025)이나 <무명인의 부산물_기록되지 않은 2004-2025>(2025)로 발전되는 매체 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작가의 관심사는 <사각형 군상>의 사각형 획에서 출발하여 <무명인의

부산물_감정선의 표식>의 깃발로 이어지듯이, 표면에 인간의 무엇이 담기는지를 향한다. <사각형 군상>에서 사람들은 사각형으로 규격화된 것처럼 보인다. 답례품으로 유통되는 수건 또한 마찬가지다. 답례품인 수건의 정보가 기념일을 인쇄하여 그 표면에 기록한다면,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일까? 문민은 이 수건을 만들고 소유하던 사람은 물론, 수건이 잠시 피부에 닿던 인물까지도 빈자리에 떠올리는 것은 아닐까?

2. 중력과의 균형

본인이 말하기에, 문민의 작품은 인간을 단순화하여 사각형 틀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다. 여기서 사각형 틀은 작가의 작품에 실제로 사용되는 모티프이다. 사각형으로 구성된 인물은 <무명인> 연작이 그렇듯이 당당히 서 있는 모습보다는 오갈 데 없이 걷거나 걸음을 멈춰 쉬는 사람처럼 거기에 있다. 생각해 보니, 필자는 왜 문민의 입체상을 서 있다고만 생각했을까? <무명인> 연작과 <다양한 크기>(2023)가 같이 전시장에 놓일 때 사람은 서 있을 뿐만 아니다. 자세히 보면 걷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들이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중력과의 균형을 조율하면서 간신히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용접이 쉽지 않은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를 다룰 때, 문민의 작업은 서 있는 인물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 있게 하는 것은 아닐까. 중력과 무게의 관계를 염두하고 만든 작품은 그 자리에서 자세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긴장과 균형을 유지한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무명인> 연작과 <다양한 크기>가 원형으로 둘러싼 가운데 놓인 <부산물>(2024)은 몸을 살짝 구부린 인간이 누워 있는 모습이다. 이 작품에서 인체를 가리는 수건은 펼쳐져 있어, <무명인의 부산물_감정선의 표식>보다 적혀 있는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온다. 이와 달리, <내려오지 않은 것들>에서 문민은 수건에 인쇄된 문구마저 잘 보이지 않게 걸어놓는다. 체인블록에 매달아 놓은 수건은 허물이나 벗어 던진 의상처럼 보이며 형태를 잡지도 못한 채 공중에 매달려 있다. 수건의 수집과 깃발로 엮는 과정을 지나, <내려오지 않은 것들>은 기존의 표현 방법보다 훨씬 연약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수건이라는 외피 너머 있는 사람, 현전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무명의 인물을 향한다. 문민의 작업을 일상의 기념비라 한다면, 그것은 일상의 어느 순간을 특별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일상을 향한다. <사각형 군상>에서 대중을 표현했던 작가에게, 셀 수 없는 익명성은 지금 여기에 표현되는 것이 아닌, 그 피안을 향한다.

<내려오지 않은 것들>은 땅에 닿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력을 완전히 거스르지도 못한다. 이러한 표현 방법만 봤을 때, 문민의 작품은 현대인에 상징되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형상은 누추해 보이고, 사람의 빈자리만 보여준다. 그런데도, 문민은 현대인의 처지를 한탄하기만 하지 않는다. <나를 비롯한 그대들>이라는 프로젝트명은 <나를 비롯한 '그들'>보다는 어감이 덜 차갑다. "그대,"라고 부르면서, 이 프로젝트를 다년간에 걸친 개인전을 관통하면서 '에피소드'로 보여준다. 최근까지도 모듈화되고 개성을 잃은 듯 보이는 인체상을 보여주면서 문민은 '현대주의자'라는 말로 작업을 설명한다. 그런데도 '그대들'의 '에피소드'라는 표현 속에 인간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민의 조각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보내는 현대인의 모습만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다.

<부산물>이 덮고 있던 베일을 걷는 순간, 거기에 있던 사람은 자취를 감춘다. 뒤집어 말하자면, 감춰져 있던 인물에게도 베일을 씌워주었었다. 문민의 '에피소드'는 무엇을 재현하여 보여주느냐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형상을 눈앞으로 가지고 오는 일에서부터 깃발의 형상을 거쳐 시선을 전시장 내의 형상뿐만 아닌 멀리 보내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민의 작품에서 우리는 제의적인 특징을 보게 된다. <부산물>이 놓인 공간에서 연출된 것처럼, 작품은 현전하지 않은 사람을 현현하도록 하는 제의가 된다. 《나를 비롯한 그대들 에피소드 : 무명인의 부산물 part.3》의 작가 노트에서 문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도 당기지 않은 것들. / 아무에게도 읽히지 않은 것들. / 끝내 조우하지 못한 것들.” 부정형으로 나열된 묘사에서, 작가는 실재하는 물건 너머에 무명인의 그대들을 불러내려고 한다.